

여성의 바람기 뒤엔 문제의 남편이 있다!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여성의 외도. 남성의 외도 심리와 다를 게 없겠다.

그러나 임상에서 만나는 여성의 바람기는 대부분 남성 성기능장애와 성적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남성의 바람기에 대해 고민하는 주부가 많은 반면, 또한 부인의 바람기에 대해 고민하는 남성도 많다.

남성들의 고민을 통해 그들 여성들의 바람기에 대해 짚어보자.

어느 날 제주도에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저는 50대의 남성입니다. 3년 전부터 갑자기 남성불능이 나타나서 이제는 부부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부인은 노골적으로 한 달에 한번만 외박하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일을 허락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인의 욕망을 해소시켜 줄 수도 없어 난감합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남편에 대해 애절한 부인의 호소가 차라리 동정까지 가는 면이 있어 남편에게 어서 빨리 치료받기를 권했다.

48세의 예술가 L씨는 요즈음 따라 부인의



잡은 외출과 행동에 유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농담으로 부인이 혹시 바람난 게 아니냐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설마 우리 집사람이…….’

주위의 이런 충고에, 어느 날 외출하는 부인을 미행하여 쫓아가 보았다. 웬 젊은 남자와 만나더니 그 다음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 믿었던 내 마누라가…….’

그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쳐들어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힘없이 발길을 돌리고야 말았다.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겁이 났던 것이다.

저녁에 들어온 부인을 추궁하니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부인이 실토를 하며,

“그래요, 제가 바람피웠어요.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헤어집시다.”

한술 더 떠 이혼하자고 나오는 부인이다. 그리고 보니 최근 3년 동안 부인의 욕구를 한번도 만족시켜 준 적이 없다.

애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의 부정을 확인하고 나서도 그대로 살자니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렇다고 죽자니 애들이 불쌍하고…,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나았을텐데….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긴박한 상황에서 L씨는 필자를 만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해보니 정맥기능부전의 발기부전으로 나타났다.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고쳐주면 부인을 용서하고 같이 살 생각입니까?”

“예, 용서해 주어야지요. 다 저 땀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수술로 완치시킨 후 첫 관계를 가지라고 권했다. 그후 그는 필자와 마주 앉았다. 이제는 L씨의 얼굴이 환해지고 자신만만해졌다.

“어때요.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까?”


“처음이라 조금 이상한 것 같았는데, 아내가 매우 좋아하던데요.”

“부인이 또 바람을 피울 것 같습니까?”

“아뇨! 이제 거꾸로 제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하던데요.” [7]

국내의학정보

음식 섭취량 줄이는게 장수(長壽) 비결

 식을 소박하게 먹는, 이른바 ‘소식(절식)’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미 텍사스주립대 노화연구소 유병팔 소장이 주장했다. 유소장은 지난 6월 5일 서울의대 국민체력과 학노화연구소 주최 장수과학 국제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참석, 특강을 통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소장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성산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 “독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노화예방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진대사를 위해 그만큼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독성산소도 많이 배출시킨다”고 밝히고 따라서 음

식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성 산소에 대해 그는 “몸에 들어 온 산소 가운데 95%는 신진대사로 소진되고 남은 나머지 5%의 산소로, 이는 우리 몸에 남아서 세포막, 유전자, 기타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 등을 파괴하는데, 그 결과 면역성이 떨어지고 각종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을 40% 줄인 쥐는 면역성이나 심장기능 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수명도 40% 정도 향상된 반면 음식물 섭취량을 제한받지 않은 쥐는 면역성이 크게 떨어지고 암·신장병·백혈병 등으로 인해 일찍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소장은 말했다. [7]